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2. 19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달러/원 동향(2/12~2/16)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 물가지표 발표 앞둔 경계감에도 한국 수출 개선 흐름과 국내 증시 강세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등에 환율은 소폭 하락
- 중반, 미국 1월 CPI 둔화세 이어졌으나 예상치 상회한 측면이 시장의 연준 금리 인하 지연 우려를 자극하면서 달러 강세 영향 속 상승 전환
- 후반,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둔화 폭이 다소 축소되더라도 금리인하 경로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하락. 이어,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 1월 소매 판매 지표에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되었으나 애플랜드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과 PPI 발표 앞둔 경계감에 하락폭 되돌리며 마감

## 달러/원 전망

- 미국의 1월 생산자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우려를 자극할 요인으로 예상. 하지만 연준의 일부 인사들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측면과 상충하는 점은 달러 지수 등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여기에 중국 출철 연휴 이후로 내수 개선에 대한 기대가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 상승과 위안화 강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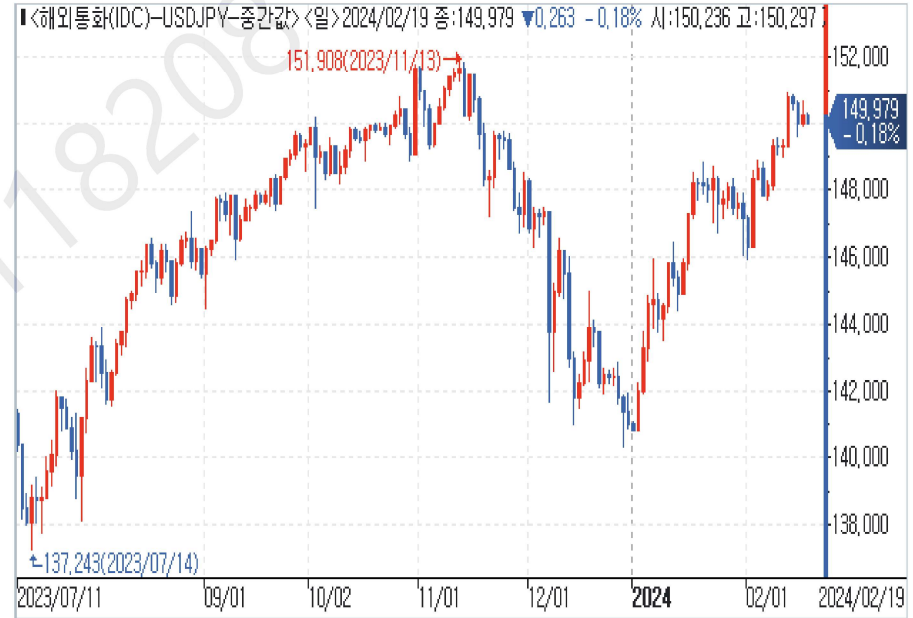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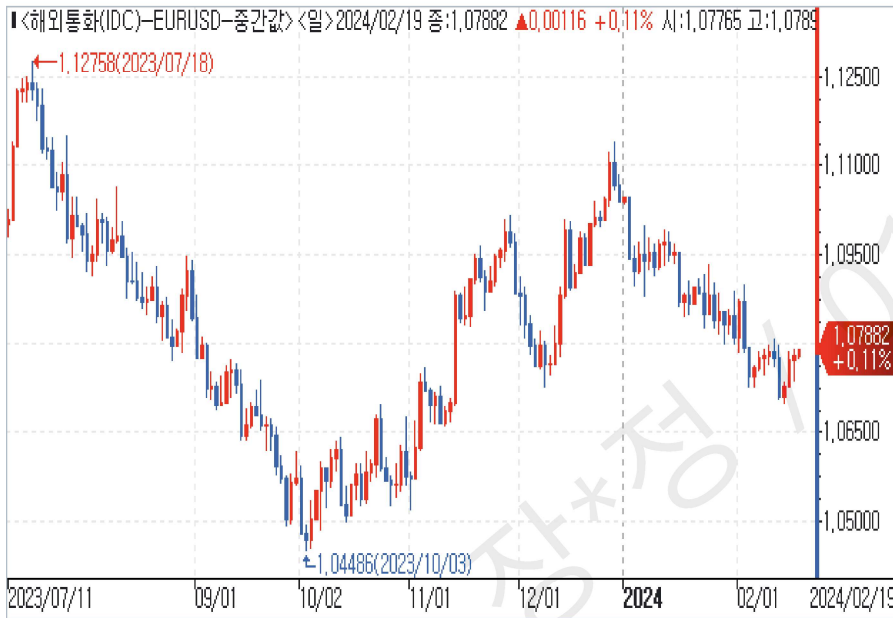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29.8	1340.4	1327.1	1335.4	+5.6

## 예상거래범위

1,325원 ~ 1,340원



# 엔·유로화 동향 (2/12~2/16)



## 유로화 동향

- 주초, ECB 인사의 인플레이션 둔화 평가와 통화정책 스탠스 전환 가능성 시사에 유로화 약세 출발. 이어 미국 CPI가 2개월 연속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연준 통화정책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달러 가치 상승하자 약세 심화
- 중반, 미국 지역 연은 총재의 비둘기 발언과 ECB 부총재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경계성 발언이 대비됨에 따라 강세 전환
- 후반, 미국 소비자표 부진한 가운데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금리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강세 지속. 이어 주 후반, ECB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 영향 이어지는 측면과 독일 국채 수익률 상승 등에 강세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786	1.0806	1.0695	1.0777	-0.0010

## 엔화 동향

- 주초, 미국 1월 CPI 둔화 예상에도 불확실성에 달러 지지력 지속되면서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예상보다 높은 미국 물가지표에 미 국채수익률 급등하면서 미-일금리차 확대 우려 속 달러당 150엔선을 상회
- 중반, 일본 재무성 관계자의 구두개입성 발언으로 엔화의 추가 약세는 제한된 모습
- 후반, 미국 소매판매 감소 전환에 따른 미 국채수익률 하락과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 반영한 안전자산 수요 등에 강세. 이어 주 후반, 일본 재무장관이 엔화 약세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을 강조했음에도 예상치 상회한 미국 PPI 소식에 달러 대비 약세로 재전환 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9.3	150.9	148.9	150.2	+0.9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2/13~2/16)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연휴 기간 미 국채 금리 상승 영향을 반영하며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국고채 10년물 입찰과 외국인 투자자의 강한 국채선물 매도세 등으로 상승 흐름 이어간 후, 1월 미 CPI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양상. 이어 미국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며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시아 시장에서의 미국채 초장기물에 대한 저가 매수 수요 등에 따른 하락 추세 반영 속 국고채금리의 상단 제한된 국면
- 후반 들어, 연준 주요 인사들의 미국 CPI 충격을 완화하는 발언 등을 내놓음에 따른 미 금리 상승 제한 영향을 반영한 가운데 미 소매판매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 3.4% 전후 공방 흐름. 이어 주 후반, 또 다른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에도 1월 미국 소매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미 국채 금리에 국고채 금리도 연동되며 보험권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연휴기간 S&P500 지수가 거의 3년여 만에 5,000선을 돌파하며 뉴욕증시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반도체와 이차전지 업종 기대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미국 1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 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도가 급격히 반감되며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미국 물가지표 우려가 잦아들며 뉴욕증시는 상승 흐름 보였지만, 코스피는 최근 주가상승을 견인했던 저PBR 종목들 숨고르기 양상 등으로 소폭 약보합 흐름 나타낸 가운데, 주 후반, 국내 증시 밸류업 기대감 속에 미국 소비자표 부진에 따른 미국 기준금리 인하 조정 기대감 반영 속에 큰 폭 상승 마감